



안전보건의 의미를 되새겼던 자리

##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

매년 7월 첫째 주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간이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졌다. 내·외빈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열기 가득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석수영 사진 김재이, 김지원



1. 산재사망사고의 감소를 기원하며 진행된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2.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원선혜 선임차장
3.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막식
4. 기념식 식전공연
5. 2019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연계한

### 다양한 프로그램

지난해 1월 정부는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어 올해 초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으면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의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사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 슬로건도 ‘안전’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잘 드러나도록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로 정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는 기념식과 안전보건 세미나,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취업박람회 등 5일 동안 펼쳐진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해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더 나은 보건관리방안,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많은 이에게 알렸다.

행사의 시작을 알렸던 ‘기념식’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의 개식 선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기념사, 노·사·정 주요 참석자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이들을 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회에서는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원선혜 선임차장이 대통령표창을, 광주전남북지역본부 김연경 차장 외 3명의 협회 직원이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코엑스 C홀 630개 부스에서 진행된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시 품목이 소개된 자리였다. 협회 부스에서는 산업보건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음은 물론 올바른 작업 자세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 ‘잡페어(Job Fair)’는 안전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늘리기에 일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협회는 잡페어에서 신규직원을 뽑기 위한 상담과 설명회 및 면접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1. 국제안전보건전시회장 내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스 전경
2. 안전보건 잡페어에 참가한 대한산업보건협회
3. 대한산업보건협회 홍보 부스에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
4. 행사에 참석한 김준연 회장
5.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VR체험관
6. 취업 상담과 설명회 등이 진행된 잡페어

**Focus**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1. 세미나 개최사를 하는 김준연 회장
2. 산업보건세미나 전경
3. 지정토론
4.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협회장 표창 수여식
5. 산업보건세미나에 참석한 연세발표자의 토론자





## '건설업종 보건관리'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 살필 수 있었던 세미나

행사 둘째날인 7월 2일에는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건설업종의 보건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산업보건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준연 회장과 정정희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정영숙 사업총괄이사, 심운택 전 협회장 등 수많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제발표가 시작됐다.

첫 번째 연제발표자로는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 교실 김영기 교수가 나섰다. 그는 '건설업의 유해요인과 건강문제'에 대해 다루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건강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제발표는 '건설업의 작업환경측정(직종별 노출평가 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발표자였던 박현희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은 "지금의 제조업 중심 작업환경측정제도를 건설업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건설업에 특화된 작업환경측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기주 SK건설 과장이 '건설업 근로자 보건관리'라는 주제로 연제발표를 했다. 하 과장은 건설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해 건설업 노동자가 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제발표 후에는 연세대학교 원종욱 교수를 좌장으로 고용노동부 이근규 산업보건과 사무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재범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성균관대학교 김수근 교수, 협회 김훈철 사업지원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토론자들이 나와 지정토론을 펼쳤다. 지정토론은 연제발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수정·보완할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시간이었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난 뒤,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시간에 걸쳐 펼쳐진 산업보건세미나는 '건설업종 보건관리'에 관한 각각도의 연구와 심도 있는 발표를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협회는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누구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 행사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협회는 더욱 발전·변화된 산업보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

